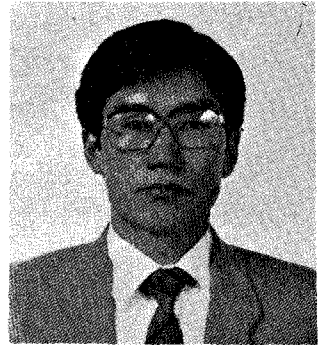


수입자유화 할 수 있는 것과 말아야 할 분야 구별해야



이 태 일
(과학축산 사장)

수입개 방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조말엽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대하여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서 대원군의 쇄국정책 때문에 발전된 서양문물을 받아 들이지 못하여 국제사회에서 낙후되고 고립되어 있었고, 그로해서 결국에는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배웠다.

그러나 사실적(史實的)인 면을 더욱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때의 상황 즉 왕권이 너무 약했고 권력을 쥐고 혼든 안동김씨는 권력의 향유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주체세력, 즉 중심점이 없었다.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국가적·국민적 수준과 바탕이 되어있지 못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를 구축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쇄국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인간적인 충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조차 들기도 한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충실히 이행해야 겠다거나 세계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해야겠다는 원론적이고 거창한 생각보다는 국내시장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에서 주시장을 해외중심적으로 뒤야 함에는 별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입을 개방해야 된다는 당국의 입장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또 개방하면 도산할 것이 뻔한 국제경쟁력이 약한 부문의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새로운 고용 창출을 억제할 수 없다는 변(辯)도 납득은 한다.

모든 경제적 문제를 우리끼리만 해결하고자 하는 「로빈슨 크루소」식의 자립경제를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열심히 거래해서 경제적 실력이 월등해지고 따라서 남의 도움이 필요없는 자립경제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이론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해외시장이 크고 수출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수출에만 주력하고 국내산업의 보호를 게을리 하면 밀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생김을 알아야 한다.

1984년에 우리는 36억달러의 대미무역에 흑자를 기록한 한편, 대일무역에서는 3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는 미국의 값은 제약을 받아가며 힘들며 미국에 수출해서 번 돈을 예쁘지도 않은 일본으로부터 각종 재화를 수입하기 위하여 쓰는 셈이다. 이것은 우리가 수출에만 힘쓰고 국내산업의 보호내지는 수입대체에 주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같이 자원이 없고 비슷한 자연환경에서 국내시장의 규모는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16배나 큰데 시장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팔지 못하고 반대로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최강 심각한 규제를 받으면서 힘들게 수출한 돈으로 일본에서 가공부품을 수입하는데 쓰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자국산업 보호로 수입대체를 하고 수출도 해서 성공한 나라이며, 브라질과 멕시코는 수입대체만 하려다가 수출을 못하여 막대한 외채를 진 나라이고 칠레는 무조건 전면개방으로 국내산업이 전멸한 나라인데 우리는 수출만 하려다가 수출로 번 돈을 수입으로 다 쓰기도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입해야 할 것 그리고 수입해도 무방한 것은 수출을 위하여 과감하게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그래서 되지 않을 것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자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보호·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축산물은 경제구조변화에 부응해서 조정이 가장 늦게 일어나는 부문이고 사회적, 정치적 파급효과가 크며 일단 기반이 망가지면 이

를 일으키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채권자가 물에 빠진 채무자를 보고 먼저 건져 놓고 빚을 독촉할 일이지 빚부터 독촉하다가 숨진 뒤에는 빚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농수축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한다면 일단 기반이 흐트러지면 이는 바로 물에 빠지는 격이 되는데 이때 국제적인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물에 빠진 채무자를 건질 틈도 없이 빚독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업종이므로 절대로 물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오늘의 경제현실에는 구조적인 측면과 순환적인 측면의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를 잘 구분하여 어긋나지 않도록 잘 다루어야 한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순환적 측면을 극복하고 이에 대응하면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하루이틀에 될 일이 아니므로 형편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여기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당시에 느꼈던 대원군의 충정과 고충을 한번쯤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 서둘러야 할 것이 있고 신중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이렇다가는 경제기획원 장관과 농수산부장관을 수입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농담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본다. 절대로 이와같은 이야기는 농담조로라도 나와서는 안되겠다. 바꾸어 이야기 한다면 우리는 수입을 자유화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분야가 있다는 것이다.

「병아리 및 노계시세업서」
「시세속보」 「사료관측업서」

구독신청은 752-3571·2 로